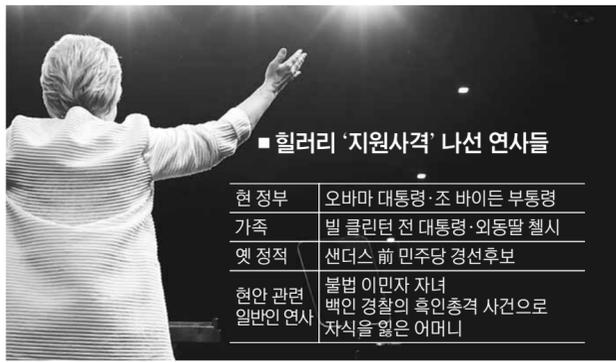


美 첫 여성 대선후보... '세기의 대결' 첫발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오바마·샌더스 지원 총출동
지도부 경선 편파관리 논란도
북핵포기·한미동맹 정강 주목



■ 힐러리 '지원사격' 나선 연사들

현 정부	오바마 대통령·조 바이든 부통령
가족	빌 클린턴 전 대통령·외동딸 첼시
옛 정적	샌더스 전 민주당 경선후보
현안 관련 일반인 연사	불법 이민자 자녀 백인 경찰의 흑인총격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을 대선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州) 필라델피아에서 개막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주(主) 행사장인 필라델피아의 농구경기장인 '벨스파크 센터'에서 개막식을 열고 미 주요 정당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나흘 일정을 절정에 돌입한다. 경선 결과를 반영한 주(州)별 대의원 공개투표, 즉 '롤 콜'(Roll Call·호명)은 전당대회 이틀째인 26일 진행되며, 이 투표가 끝나면 클린턴 전 장관은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다.

후보수락 연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있을 예정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후보수락 연설을 통해 대선 승리 전략과 집권 후의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클린턴 전 장관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사흘째인 26일 후보수락 연설을 한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외동딸 첼시,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등 당의 주요 대주주들도 화합의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 찬조연사로 총출동한다.

또 '드림러'(Dreamer·불법 이민자의 자녀로, 오바마 행정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란 뜻으로 명명)의 상징인 멕시코계 아스트리드 실바, 백인 경찰의 흑인총격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도 대거 연단에 오른다.

'함께 단합하자'(United Together)를

테마로 진행되는 이날 첫날 행사에는 샌더스 의원과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첫 주자로 공동 출격한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당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대선 필승의 결의를 다지는 무대로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 전국위원회(DNC) 지도부의 경선 '편파관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비 와서던 솔즈 DNC 의장이 결국 사퇴키로 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샌더스 의원이 이날 찬조연설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진정한 화합이나 갈등이냐의 길로, 갈등의 길로



힐러리 캠프 선거운동원(왼쪽)이 25일 전당대회장에서 깜짝 청혼을 받고 있다.

지달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간 대선공약의 기초가 될 정강도 채택한다. 정강은 북한을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북핵포기 압박 및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과 더불어 샌더스 의원이 주장한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등의 진보적 내용과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검토와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비롯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한 통상 공약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④ 대세를 그린친 유표

유표(劉表, 142-208)는 산음군 고평현 출신으로 자는 경승이다. 후한 말 형주목으로 선정을 베풀어 천하의 혼란을 피해 많은 명사와 백성들이 다투어 형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천하대세를 읽는데 둔감해 수성만 하다가 사후 형주를 잃고 자멸했다.

그는 어려서 팔준(八俊)으로 불리었는데 사람 중에 영걸을 의미한다. 이응, 순익, 두말, 왕창 등이 팔준에 선정되었다. 신장이 8척이 넘었고 자태와 용모가 위엄이 넘쳤다고 한다. 영제 때 대장군 하진 밑에서 북군중후에 임명되었다. 소제 때 형주 자사로 영전하였다. 남양의 원술은 손견과 연합하며 형주를 탈취하고자 하였다. 손견을 보내 유표를 공격했는데 손견은 유표측의 황조군이 쓴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후 남쪽의 영릉과 계양을 점령

사족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유표의 정치집단 내에서는 체세와 괴씨 가문의 발언권이 강했다. 채모와 괴월은 형주의 군권을 좌지우지했다. 후처 채씨의 조카를 둘째아들 유훈의 처로 삼았다. 제갈량의 큰 누이는 괴씨에게 작은 누이는 방덕공의 아들인 방상민에게 출가했다. 유표 사후 장남 유키 대신에 유훈이 뒤를 이은 것은 이와 같은 형주 사족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200년 중원 패권을 놓고 조조와 원소가 관도에서 부딪혔다. 원소는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을 하지 않았다. 조조도 듣지 않고 장강과 한수 일대를 지키며 천하의 정세를 살폈다. 한승과 유선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조조는 반드시 원소를 공격할 것이고 이후에 장강, 한수 일대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조와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모든 주를 인술해서 조조에게 귀순하는

선정 베풀었지만 수성만 하다 자멸

하고 북쪽으로 한전을 빼앗으니 영토가 수천리에 군사가 수십만에 달했다. 그는 중려 출신 괴량과 괴월 양양 출신 채모의 도움을 받아 형주 지배권을 확고히 하였다. 형주의 여덟 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강릉과 양양이었다. 괴월은 "남쪽으로 강릉을 점거하고 북의 양양을 지키면 형주가 잘 소탕되고 안정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그는 꾀가 있고 의심이 많아 자신의 영토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히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영제 이래로 오직 형주만이 안전했으며 유표가 형주 목이 되자 백성들이 풍요를 누렸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중원의 전란을 피해 내려 온 사람들이 십여만에 넘었다고 한다. 관서지 방과 연주와 예주에서 넘어 온 학자들이 천여명을 넘었는데 이들을 잘 돌보아 공핍하지 않게 하였다. 「독사병여기요」라는 책에는 "양양은 천하의 허리요 척추다. 중원을 손에 넣으면 동남을 병합할 수 있고, 동남을 얻으면 서북 역시 도모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양양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전략적 요충지다.

양양 주변에는 방덕공, 방민, 방상민 등 방씨, 제갈량의 장인 황승언 등 황씨, 괴월, 괴량, 괴기 등 괴씨, 채모 등 채씨와 같은 명문 사족이 많았다. 그는 채모의 누이를 후처로 삼아 아들

것만 못하다. 조조는 반드시 장군에게 깊이 감사할 것이고 이 나라는 후대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책략이다." 그러나 시기와 의심이 많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표가 조조에게 패해 도망쳐오자 후하게 대접하고 신야 지방을 맡겼다. 그러나 중용하지는 않았다. 유표는 흉중에서 농사짓던 제갈량을 삼고초려해 참모로 영입했다. 제갈량은 "선제께서 신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이 스스로를 굽혀, 세 번이나 초려로 신을 찾아오셔서 신에게 담당한 세상의 일을 자문하셨다"고 출사표에 유표와의 만남을 기술하고 있다.

208년 조조가 형주를 토벌하려 군대를 일으켜 형주에 도착하기전 병으로 죽었다. 유훈이 뒤를 이었는데 괴월, 한승, 부순 등이 조조에게 귀순할 것을 진언했다. 조조의 군대가 양양에 도착하자 모든 주를 바치고 투항했다. 삼국지 저자 진수는 "유표는 위엄과 무용이 있었고 넓은 도량과 식견이 있어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지략을 좋아하고 결단력이 없었고 인재를 등용치 않았으며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에 받았습니다.

독일, 잇단 이민자 잔혹 범죄 국지 물린 메르켈 난민 정책

독일에서 난민·이민자 출신이 저지른 대형 인명살상 사건이 잇따르면서 독일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펼친 관대한 난민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으며 치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개헌론까지 는 의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22일 이른게 이민자 가정 출신의 18세 독일인 청년이 뮌헨 맥도날드·쇼핑몰에서 총격으로 10대 7명을 포함한 9명을 살해했다.

24일에도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로이틀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2)이 흉기를 휘둘러 임신한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난민이나 이민자 가정 출신 청년이 시민들을 향해 발인 극단적인 범행 자체가 던진 충격이 워낙 큰 터라 다른 유럽 국가보다 관대한 정책을 펼쳐 난민을 대거 수용한 메르켈 정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브렉시트)과 유럽 경제 문제, 기승을 부리는 대중영합주의 등 이슈가 산적한 메르켈 총리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국 집어삼킨 '열돔' 산불·폭풍우 몸살

미국에서 '열돔'(heat dome) 현상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말 내내 27개 주(州)가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국립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열돔 현상에 따른 짙더위는 24일 현재 동부 해안에서부터 중서부, 남부, 북서부 지역에 걸쳐 맹위를 떨쳤다. 이에 27개 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약 1억1400만 명이 더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CNN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미 기상당국은 캘리포니아 주 데스밸리 지역에서 최고 온도가 49.4℃(화씨 121도)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열돔 현상이 나타난 상당수 지역에서도 43.3℃(화씨 110도)를 웃돌았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남부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주택 18채를 태웠다. LA 소방서장 존 트립은 "불길이 집들을 집어삼켰다"며 "화물열차와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폭염은 26일 켄타키 폴링 전망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중북부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에서는 지붕이 있던 노인 5명이 폭염으로 숨졌다.

이번 짙더위를 유발한 것은 '열돔 현상'이다. 대기권 중상층에서 발달한 고기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 클라리타에서 소방대원들이 산불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온과 강풍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압이 오랜 기간 정체해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놓은 기상 현상을 말한다. 마치 열이 쌓인 모퉁이 등(반구형 지붕)에 갇힌 모양이어서 '열돔'으로 불린다. 열돔 현상이 일단 발생하면 예년보다 5~10℃ 이상 기온이 상승한 날이 며칠씩 이어진다. 앞서 지난날 말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등 서남부 주에서 발생한 가마솥더위도 열돔 현상의 하나였다. /연합뉴스

특히 기상당국은 습기를 동반한 더위가 잇따르 폭풍우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날부터 뉴욕 주를 비롯한 동북부에서는 폭풍우로 나무가 쓰러지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폭풍우는 24일 오후대를 거쳐 중서부로 이동할 전망이며, 기습적인 폭우를 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NPL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11,546㎡ 건물 5,733㎡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9천(45%)
-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나이트빌 10층중 10층 스키아리온지상가 83㎡ 감평가 8억7천7백 ▶ 최저가 8억7천7백
- ★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대 인근 운천학원부지 토지 6,655㎡ 건물 443㎡ 감평가 27억6천1백 ▶ 최저가 27억6천1백
- ★ 광주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인근 영화관 1층 684㎡ 상가 감평가 35억5천5백 ▶ 최저가 19억9천(56%) 식당, 대형판매장 적합
- ★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평가 57억6천7백 ▶ 최저가 25억8천3백(45%) 기아차공장인근
-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평가 21억3천2백 ▶ 최저가 14억9천2백
- ★ 광주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모델 토지 363㎡ 건물 1,024㎡ 감평가 9억9천3백 ▶ 최저가 5억5천6백(56%) 코너위치
- ★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건물 대지 181㎡ 건물 320㎡ 감평가 2억6천5백 ▶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북구 유동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유동인구많은 ▶ 매매 55억원
- ★ 광주 북구 유동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 수익위치좋은 ▶ 매매 20억원
- ★ 광주 수원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 8백만원 ▶ 매매가 17억
- ★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 2천3백 송 18억 ▶ 매매 49억 5천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 13억원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지상9층 병원빌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 매매 48억(요양병원허가취득)
-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 시설부지코너위치 건폐율 70% 용적 250% ▶ 매매가 4억4천(조정무)

수익형 추천

- ★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델 대지 1,181㎡ 건물 850㎡ 대로변 내외부개끗 매매 4억(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 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인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 매매 9억3천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펜션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 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제주도 서귀포 시장정마을펜션, 빌라 부지 적합 4,000㎡ 주택 28세대 기능수익형 28억선교환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 18개 투룸 6개 쓰리룸 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버스 정류장앞 ▶ 매매 13억5천
- ★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목포시연산동 롯데슈퍼 인근대로변 버스 정류장 앞 대단위아파트 단지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 매매 35억
- ★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 947㎡ 지하, 1층 상가 사무실, 2~4층 오피스텔 ▶ 매매 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상담환영